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3:19-29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개인교사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7/5/26	7/12/26
윤한진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

바성경을 읽으실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즉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숲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세한 나무를 들여다 보시면,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시거나,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 도덕적 이해로 풀어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숲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언약이란 오래된 언약이라는 뜻이라기 보다 선행된 언약, 모형으로 주어진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언약은 반드시 새 언약이라는 실체가 나타나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관점을 구속사적 성경해석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완성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첨가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참 복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까지 전가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이나 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의 계획을 보았고, 그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나 도덕이나 상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번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 위에 서서 그분의 이끌어 가심과 그분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